

100.7MHz 마포 FM
(생방송)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2부 질문지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AM 09 : 30분부터 약 20분간
- 방송내용 : '쓰레기덕후의 가상마을 - 쓰레기덕질' 커뮤니티

1.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쓰덕 -쓰레기덕후의 가상마을 쓰레기덕질 커뮤니티- 줄여서 쓰덕이라
우리끼리 부르는데요, 여기 가입 멤버 중 한 명, 허지현. 닉네임은 클라블라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클라블라우 Klarblau는 물빛, 쪽빛 같이 파란 색을 그 색감
을 표현한 단어인데, 영어 직역 clear blue의 독일어.)

2. '쓰레기덕후의 가상마을', 청취자 분들이 듣기에 생소하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쓰덕은 빠띠라는 플랫폼에 있는 커뮤니티 중 하나고요,

-'빠띠' 플랫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빠띠는 이슈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개인, 팀, 커뮤니티 플랫폼이에요.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보다 사회문제
에 관심있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곳 같고요.

-'가상마을'이라는 공간의 의미

세상에 없는 제로웨이스트, 쓰레기없이 사는 가상마을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신나는
어쩌면 놀이같은 마음가짐이랄까요. 이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쓰레기 관련하여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테마인데 항상 거기 우리가 같
이 있듯이 있는 공간이 마을인 것 같아요. 가족같이 밀접한 관계는 아니고, 그렇다
고 지구촌 한마을처럼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 소규모집단.

그리고 마을에서도 누구 만나려고 해도 그 집에 가면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
고 어쩔땐 기다려야 하고 하듯, 여기도 좀 그래요. 대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카톡
처럼 즉각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개인 연락
방법이 없어요 댓글밖에.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마을같은 규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제 생각이구요

3. 일명 '쓰덕', 처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어떤 직장 동료 3명에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더라
도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뭔가 같이 해 보자는 생각에 쓰레기를 안 만들고 살아보
자는 것을 프로젝트처럼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1달은 자기가 내는 쓰레기를
관찰했고, 2달인가는 쓰레기 안 만들기를 실천했죠. 그리고 그걸 매일 사진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게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러다가 빠띠 플랫폼을 알
게 되어서 온라인공간을 만들었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클라블라우 님은 언제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게 되셨나요?

작년에 빠띠의 다른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가입하고, 빠띠를 둘러보다가 아마 작년
말에 쓰덕에 가입했던걸로 기억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쿵쾅쿵쾅 뭔가 하는것들을 보고 반가워서 가입하게 되었어

100.7MHz 마포 FM

(생방송)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2부 질문지

요. 마치 친구 생긴 것 같아서 혼자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4월에 반상회(오프라인 모임)나 한 번 하자고 하길래 갔죠.

저까지 4명 모였는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먹을 거 조금씩 싸 오고 그것도 도시락통에. 그 때 저도 제 소개하고 하니까 기존멤버분들이 만들기 공간 하나 만들자고 하셔서, 저도 그 동안 혼자하면서 블로그에 조금씩 올리는 것 만드려는 뭔가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그렇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4. 커뮤니티 게시판이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져 있더라고요.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셀프칭찬, #쓰레기 관찰기 #쓰레기덕질 마을회관(수다방) #쓸애기를 부탁해 #어쓰 #제로웨이스트 틱팁

마을회관은 자유게시판 같은곳이고,

쓰레기 관찰기는 자기가 일상에서 만든 쓰레기를 공유하는 곳,

셀프칭찬은 말 그대로인데, 스스로 흡족했던 것들 자랑해요.

제로웨이스트 틱팁은 자신의 노하우 공유하는곳,

어쓰는 올해 일회용품사용실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활동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쓸애기를 부탁해는 버릴것으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쓰레기 줄이고 새 소비를 줄이는 업사이클링 만들기 코너?

5. 말씀해주신 카테고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먼저 클라블라우 님께서는 '쓸애기를 부탁해'를 말고 게시군요. '쓰레기'를 '쓸애기'라고 칭하시는데 남다른 애정이 느껴져요. '쓸애기'라고 이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4월에 반상회 모임 가서 그룹만들자는 얘기 나왔을 때 이름 고민했던 거예요. 그 때 참여하신 금섬님이 부산 성 베네딕토 수녀회 이해인수녀님 계신 수도회 공간에서 본 표현인데, 우리도 같이 써 주자는 생각에 그렇게 지었어요.

5-1. 그동안 어떤 물품으로 업사이클링 DIY를 해오셨는지, 예를 들어 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업로드 하시는 것도 간략히 언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주로 제가 생활에서 생기는 것들 남들이 보기엔 쓰레기인 것들을 주재료와 부자재로 써서, 그냥 공작하듯 해요. 그리고 지인들이 모아주시기도 하고요.

하다보니 더 예쁘게, 재료 사용시에도 색깔과 재질을 생각하고, 나아가 그걸 조합하는 방법 연구(?)하게 되고.

특히 요즘에는 재활용 후처리까지 생각해서, 분리수거 안되는 것이나 해도 재활용률 낮은 것을 주로 하다 보니 주재료가 플라스틱 계열이 많아요.

페트컵, 비닐포장재, 자투리천...등이 주재료가 되고, 소위 부자재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다보면 모으게 돼요. 빵끈, 포장끈, 철사 나사,비닐끈부터 옷사면 나오는 핀, 실,

100.7MHz 마포 FM

(생방송)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2부 질문지

쇼핑백에 달린 플라스틱 손잡이들, 식품류 사면 지퍼백봉투, 과자봉지 커피믹스봉지 까지, 플라스틱상자, 플라스틱뚜껑, 상자에 붙어있는 아직 접착력 탄탄한 스티커, 택배포장스티커, 어디 부러진 부분 등... 다 안 버리고 모아놓게 돼요. 그럼 만들 때 모아놓은 것 중에 알맞은 걸 찾아써요. 정말 생활에서 버릴 게 없어요 사실.

만드는 것은 페트컵 활용한 조명, 페트병과 상자 활용한 선물 소품, 비닐포장재 활용한 주머니, 양파망 이어 만든 가방, 크리스마스조명, 가랜드, 모빌, 자투리천 이용한 홈패션, 가방, 옷, 손수건 테이블보 키친클로스 냅킨 등등등...

혹은 플라스틱재료 아니더라도 드라이플라워로 카드에 붙이거나 병에 담아 상자를 만들기, 커피찌꺼기를 꽃모양으로 담아 방향제로도 장식으로도 쓸 수 있게 한다던지.

6. #쓰레기관찰기에서는 '쓰레기 없는 일주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캠페인인가요?

할 수 있는 만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해보고, 그럼에도 나오는 쓰레기는 기록해보는 것. 그 코너에 자기 닉네임 적고 자기가 기간 정해서 시작해요. 기간 동안 쓰레기 없이 살기에 도전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쓰레기는 매일 공유해요.

7. #어쓰는 일회용컵 모니터링 모임이군요. 이곳에서도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신다고요? 어떤 캠페인인가요?

어쓰는 1회용컵 사용실태 시민 모니터링단입니다.

요 카페 업체 28곳(자발적 협약 체결 업체, 전국 매장 수 300개 이상 업체)의 수도권 매장 3곳씩 총 84개 매장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8개 기업과 환경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28개 커피숍과 환경부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캠페인입니다.

마침 이걸 시작한 분이, 여기 망원동주민이예요. '망원시장 알맹'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건데, 장 보면 나오는 과대포장 말고 물건 알맹이만 원한다는 뜻에서 알맹이라고 지었고, 우선 망원시장에서 비닐봉지 안 쓰고 장바구니 대여하는 프로젝트를 얼마전에 시작하셨어요.

7-1. 환경부가 8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을 규제한다고 밝힌 것과도 연결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쓰서명캠페인이 8월19일 마감을 계획으로 7월초 시작한거잖아요, 그 와중에 8월1일에 환경부가 일회용컵규제정책을 내놓은 뉴스를 듣고는 서명운동이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까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 환경부가 이런 정책을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긴 했지만 천천히 해 오다가, 여론이 강해지니까 더 서둘러 행정을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게 많아서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러니까 여론에 휘말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쓰레기 대란 불거지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태도 아니었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100.7MHz 마포 FM
(생방송)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2부 질문지

9. '쓰덕' 오프라인 모임도 있나요?

정기적이진 않고, 가끔 번개식으로 있어왔어요.

9-1. 멤버들은 이곳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정보 공유? 쓰레기 대란 전에는 공통분모를 가진 분들이 모여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유대감을 느끼는 것이 주였다면, 그 이후로는 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10. 앞으로 '쓰덕'에서 더 진행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전 지금 쓸애기를부탁해 코너를 처음 계획대로만큼 하는게 우선이에요. 더 꾸준히 작업하고 만들어서 올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런거 만들어주세요 하고, 더 자주 같이 만들기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 몇 달 너무 더워서 안 하고 있어요.)

11. 클라블라우 님께서는 '쓰덕'이라는 가상 마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십니까?

지금처럼 마을주민들이 소소하게 이웃처럼 지내는 분위기,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같이 해 나가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좋아요. 사실 다들 머릿속으로만 알아도 실천을 하기 어려운데,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서든 같이든 진짜로 하는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재밌고요, 놀이같아요.

자기 쓰레기가 뭐가 있나 봐보고, 다른사람들이 보게 해서 피드백도 얻어보고 그럼 더 다음번엔 발전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작은것이라도. 또 자기가 뭐 오늘 하나 해냈다고 자랑 좀 하고, 그거 보고 어 난 저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신기해서 딴 사람도 해보고...

나아가 책이나 영상을 보고 소감을 얘기해도 되고, 그냥 모이자 그래도 되고...
그러면서 개개인이 알차게 영글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 나 하나라도 제대로 사는 개개인이 모이면 사회는 저절로 탄탄해진다고 봐요.

12. 오늘 방송을 듣고 '쓰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검색사이트에서 '쓰레기덕질' 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구요. 가입절차나 기준 없이, 누구나 가입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가입인사 같은 거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13.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디 가서도 당연하게 자기 손수건으로 흘린 음료 닦고, 내 수저 꺼내서 먹고 도시락 통 꺼내 펼치고 다시 집어넣고 나아가 좀 낡은 물건 10년 쓰고 살아도 핀잔 안 듣고 그런 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거 사실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언젠가부터 소비가 미덕이 되면서 낡고 오래 쓰고 안 꾸미면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100.7MHz 마포 FM

(생방송) <송덕호의 마포속으로> 2부 질문지

인식이 생겼어요. 그런 생활 인류가 충분히 겪었고, 그만큼 부작용도 겪고 있는 만큼 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초 쓰레기대란, 중국에서 폐플라스틱수입 안 한다고 하고, 한국 수거업체도 반발했던 그 때 전에는 이런 움직임이 유별나다는 인식이었는데, 마침 쓰레기대란 덕분에 이런 모임이 주목을 받게 되었긴 하네요. 여기 가입하신분들은 이런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램이 속으로는 다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신분들은 같이 있어주시고 서로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응원하고 도움이 되도록 한다면 좋겠어요.

자기 행동하나하나에 항상 깊이 생각하고, 물건 하나 들여놓을 때에도 저게 나와 이웃과 나도 모르는 지구 저편 사람과 동물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나에게까지 온 건지 알면 하나 물건 돈 주고 사는 소비자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함부로 못하게 돼요. 그럼 물건 살 때 오래쓸 걸 사고, 고장나면 고쳐쓰고 다르게 쓰고... 이러다보면 저절로 버릴것이 없어져요. 버릴것이라고 해도 모아서 내게 필요한걸로 바꿔 쓰기 하다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일궈나가는 인간 본능의 기쁨도 좀 더 맛볼 수 있고요. 원래 자연생태계에는 내게 필요없어도 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순환시스템이에요.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